

2016 KBA 기업지원 세미나 (11.25)

유럽경제 전망과 EU 주요 이슈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최지영 상무관

CONTENTS

I 유럽경제 전망('16~'18)

1. 총괄
2. 주요 분야별 전망
3. 대내외 위험요인

II EU 주요 이슈



I 유럽 경제전망('16~'18)

1. 총괄
2. 주요 분야별 전망
3. 대내외 위험요인

1. 총괄 : 완만한 성장흐름 지속

긍정적 요인

- 고용확대에 따른 소비증가
-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자금조달여건 양호
- 난민 및 안전관련 재정지출 확대
- 투자회복

부정적 요인

-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
- 중국 성장둔화 및 글로벌 성장둔화
- 저유가 및 유로화약세 이익의 소멸

주요 경제지표 예상치('16.11월 EU집행위, 괄호안은 유로존)

경제지표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1.8(1.7)	1.6(1.5)	1.8(1.7)
실업률(%)	8.6(10.1)	8.3(9.7)	7.9(9.2)
물가상승률(%)	0.3(0.3)	1.6(1.4)	1.7(1.4)
경상수지(GDP대비 %)	2.1(3.7)	2.1(3.5)	2.2(3.3)
재정수지(GDP대비 %)	-2.0(-1.8)	-1.7(-1.5)	-1.4(-1.5)

주요 회원국별 성장률('16.11월 EU집행위, 전년대비 %)

* EU 집행위는 영국의 2017년 성장률을 춘계전망치인 1.9%에서 1.0%로 대폭 하향조정
이는 브렉시트 협상 등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가 감소하고 민간소비도 위축되는데 기인

경제지표	2016	2017	2018
독일	1.9	1.5	1.7
프랑스	1.3	1.4	1.7
영국	1.9	1.0	1.2
스페인	3.2	2.3	2.1
포르투갈	0.9	1.2	1.4
이탈리아	0.7	0.9	1.0
그리스	-0.3	2.7	3.1
벨기에	1.2	1.3	1.5

EU 외 주요국 성장률 ('16.11월 EU집행위,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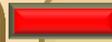
미국	1.6	2.1	1.9
중국	6.6	6.2	6.0
일본	0.7	0.8	0.4

2. 분야별 전망

경제성장 : 내수위주의 완만한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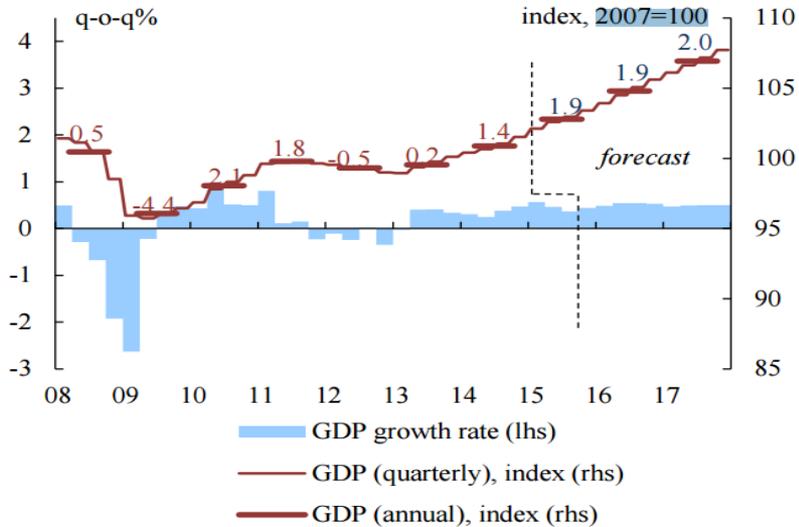


- 고용증가/임금상승 → 소비증가
- 완화적 통화정책
- 난민/안전관련 재정지출 확대
- 점진적 투자회복



-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
- 중국 성장둔화 및 글로벌 성장둔화
- 저유가 및 유로화약세 이익의 소멸

Graph 1.21: Real GDP, EU



Figures above horizontal bars are annual growth rates.

항목	비중	'15	'16	'17	'18
실질GDP	(1000)	2.2	1.8	1.6	1.8
민간소비	(54.9)	1.0	0.9	0.8	0.8
정부소비	(20.7)	0.3	0.4	0.3	0.3
투자	(19.7)	0.6	0.7	0.6	0.7
재고	(0.1)	-0.1	-0.2	0.0	0.0
수출	(46.2)	2.9	1.2	1.5	1.9
수입(-)	(41.7)	2.6	1.3	1.6	2.0
순수출	(4.5)	0.3	-0.1	-0.1	-0.1

고용시장

실업률 하락, 견고한 고용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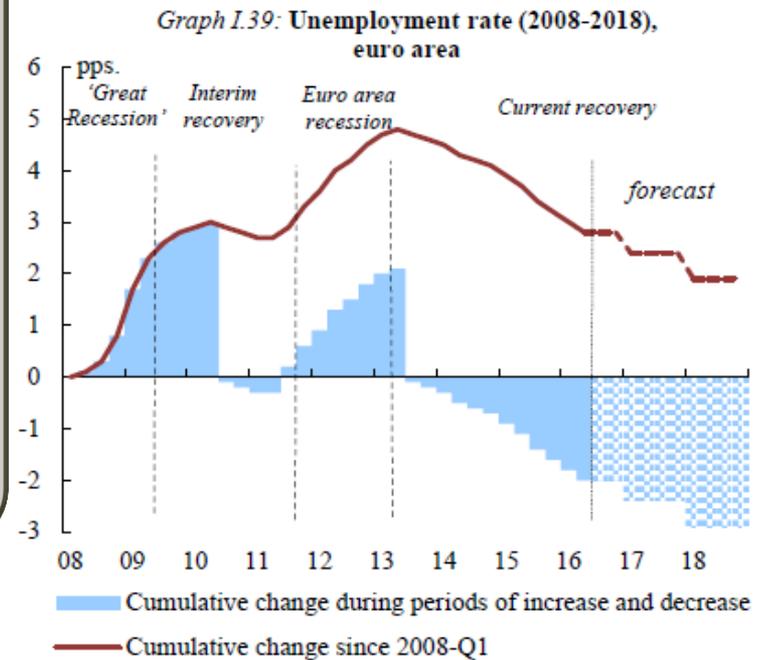
내수중심 경제성장, 임금상승 억제, 구조개혁 등 실업률 하락 전망

-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키프러스 등 노동개혁 국가의 실업률 하락폭이 클 것
- 실업률 전망(%) ('16) 8.6(10.1) → ('17) 8.3(9.7) → ('18) 7.9(9.2)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 서비스업의 경우 파트타임 고용비중 높음
-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유로존 국가들의 실업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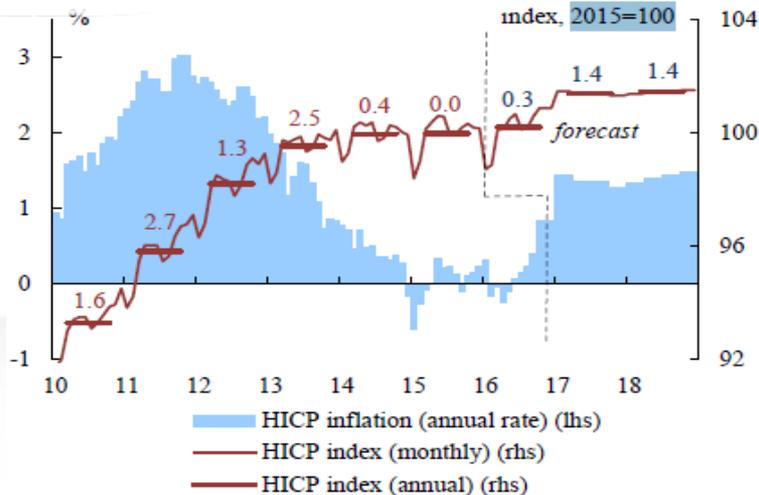


물가: 점진적 상승, 그러나 상승률은 불충분

저유가 효과 소멸, 명목임금 상승, 경기회복 등에 따라 '17-'18년에는 1% 중반 회복 전망
 다만, 미약한 총수요 증가세, 완만한 임금상승(서비스 분야) 등이 상승세 제약
 - 물가상승률 전망(% , ()는 유로존) ('16) 0.3(0.3) → ('17) 1.6(1.4) → ('18) 1.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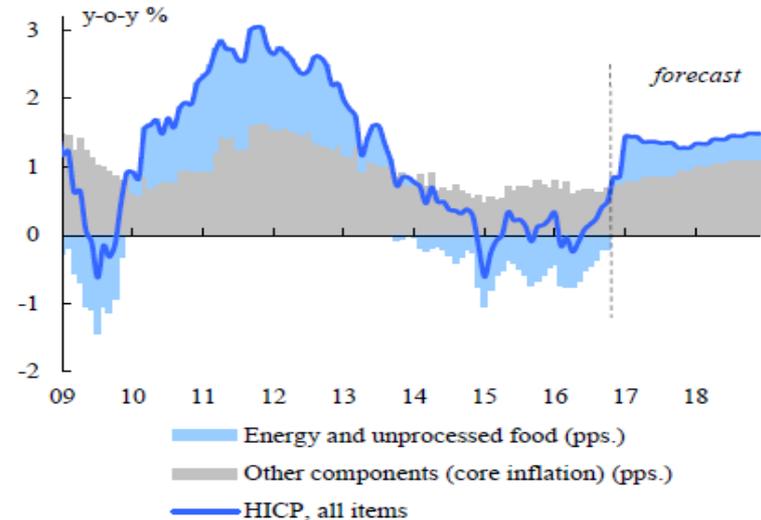
* 각국의 경제성장률, 임금상승압력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차별화
 '16년: 사이프러스-1.5% vs. 벨기에 1.7%
 '18년: 사이프러스 0.7% vs. 에스토니아 2.6%

Graph I.2: HICP, euro area



Figures next to horizontal bars are annual inflation rates.

Graph I.47: Inflation breakdown, euro area



경상수지 : 안정적 흑자, 그 흑자폭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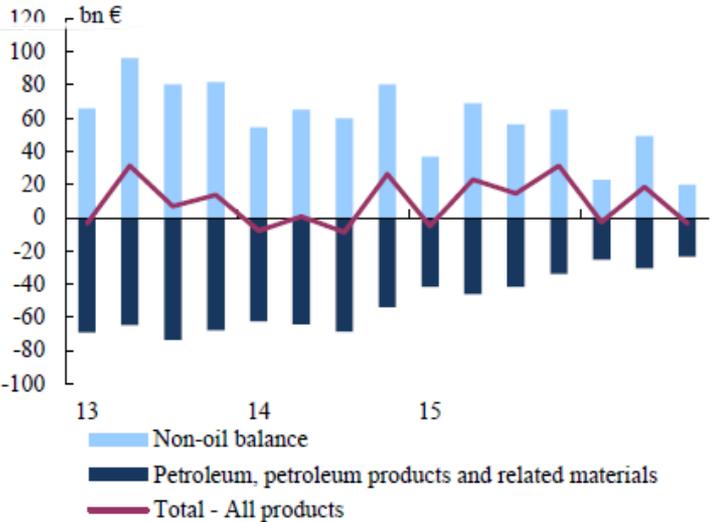
상대적 저유가, 유로화 약세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확대

'16년 GDP대비 흑자비율 최고수준(EU 2.1% 유로존 3.7%) 후,
'17년 이후 소폭 하락 전망 (원자재 가격 회복, 유로화 가치 점진적 상승)

독일, 네덜란드의 견고한 흑자기조 이어지나, 프랑스는 적자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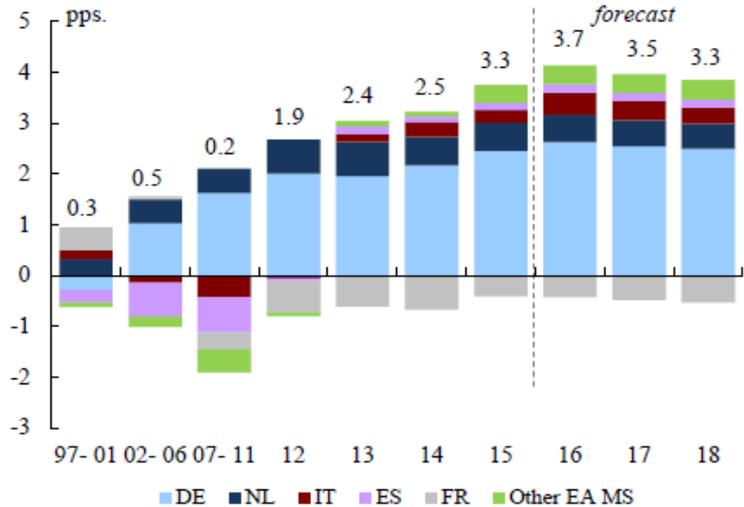
흑자비율(%/GDP) 독 일 ('16) 9.0 ('17) 8.7 ('18) 8.5
프랑스 ('16)-2.1 ('17)-2.3 ('18)-2.6

Graph I.36: Oil and non-oil balance for Extra-EU trade



Customs basis trade balance data differ from those presented elsewhere in the forecast document.

Graph I.35: Current account, euro area, contributions by Member States



Figures above bars are unadjusted euro-area balances (%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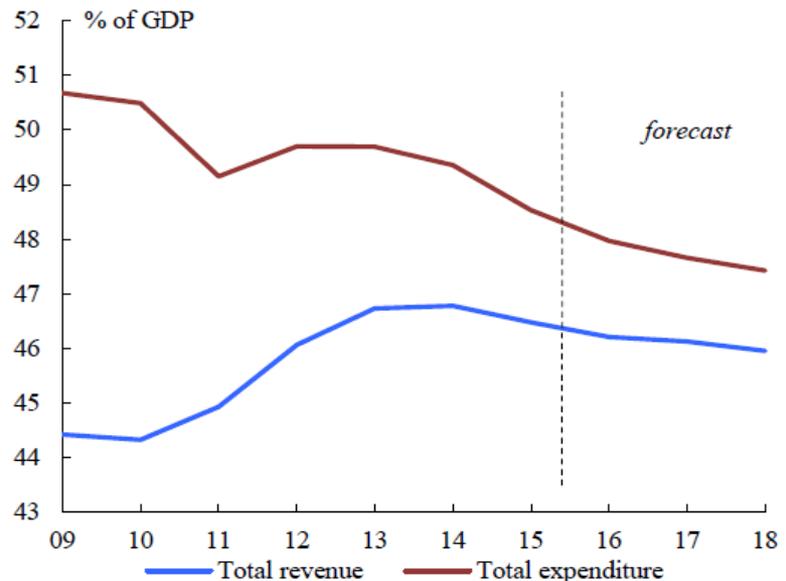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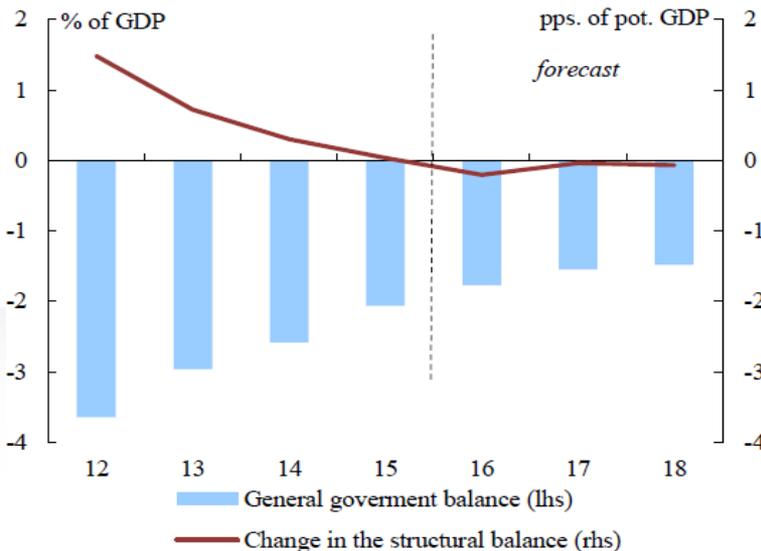
재정수지(Government Finance) : 적자축소 기조, 정부부채 감소

적자 축소 (GDP대비 %) : ('16) 2.0% → ('18) 1.4%

- 재정수입·지출 동시 감소 (지출감소 속도가 빠른 경향) → GDP대비 재정비중 ↓
(수입측면) 근로소득 감세 등으로 재정수입 ↓
(지출측면) 사회이전지출 감소 등 재정지출 ↓

정부부채 감소 (GDP대비 %) : ('16) 86.0 (91.6) → ('17) 85.1 (90.6) → ('18) 83.9 (89.4)

- 축소원인: 경기회복세 지속, 재정건전화 노력, 이자지급액 축소(QE)



3. 위험요인(부정적요인 > 긍정적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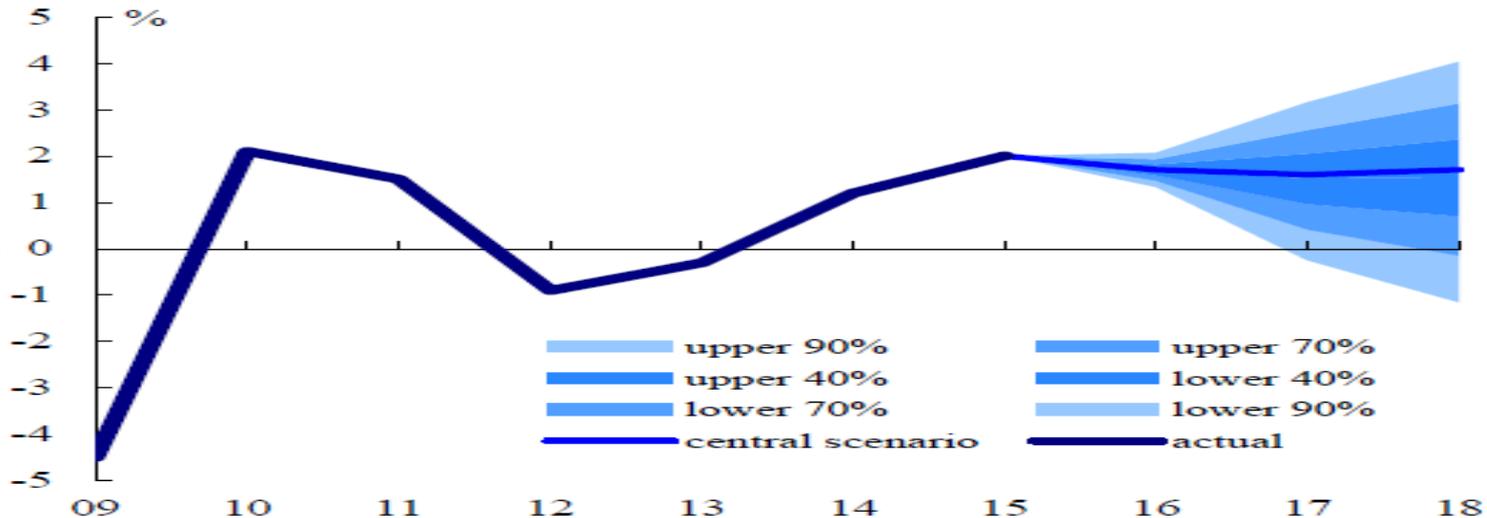
대외적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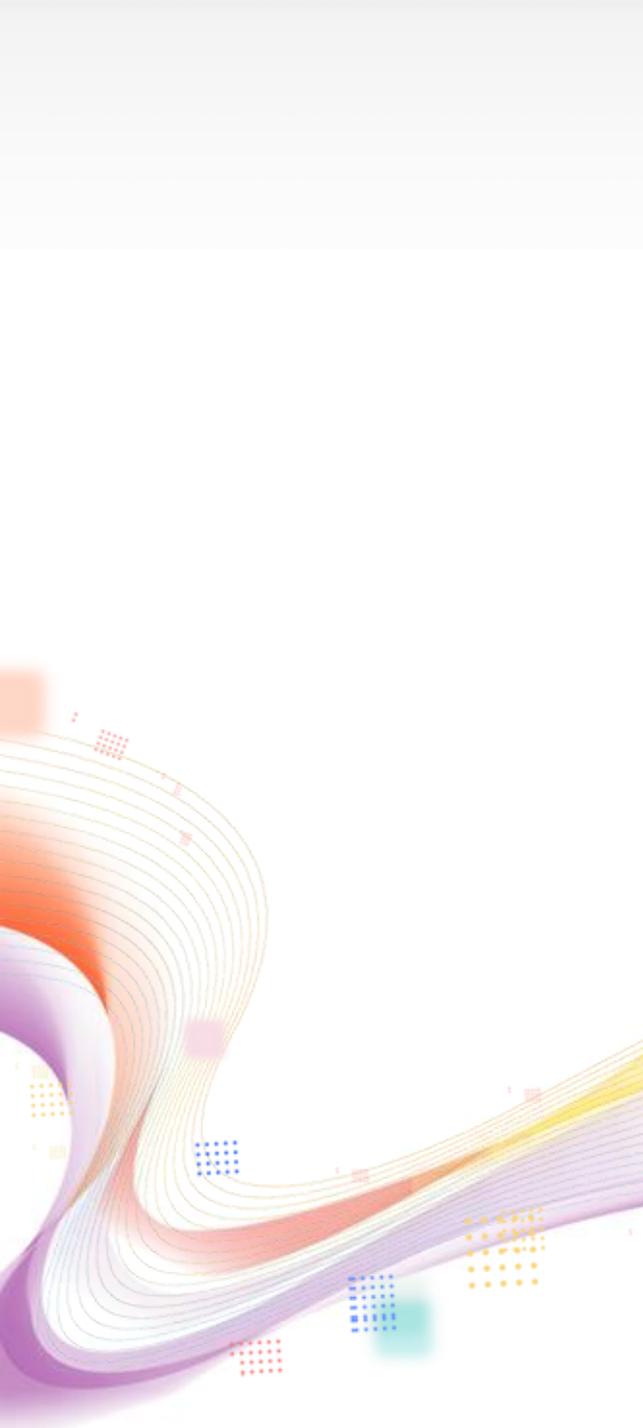
- 브렉시트 협상과정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 : 무역관계, 이민, 노동이동성 등
-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 지정학적 긴장 등
- 중국경제 경착륙, 취약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감소, 선진국 저성장 기조 지속

대내적 위험요인

- 은행부문 수익성 악화 → 자금공급 여력 제약 → 투자자 신뢰 저하
- 경제/금융정책 불확실성, 구조개혁/불균형조정 반발 → 구조개혁 지연
- 저성장, 저물가 고착가능성 (←자기완결적 기대 상존)

<시나리오별 GDP 성장전망(유로존)>





|| EU의 주요 이슈

II. EU 주요 이슈

1. EU의 구속력 있는 입법

1. 규정 (Regulation)

: 불특정인(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에 직접 적용

2. 지침 (Directive)

: 불특정/특정인에 개별회원국 입법에 의해 적용

3. 결정 (Decision)

: 특정인에 대해 직접 적용



2. 기업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EU 정책결정 사례

에코디자인 규정

- ✓ 전자제품 등의 소비전력 요건 규정
(예 : TV, 컴퓨터 등 off mode 대기전력이 0.5W를 넘지 않을 것)
- ✓ 수입품을 포함, EU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
- ✓ 최근 소형제품 6개 품목 추가 발표
(핸드 드라이어, 전기주전자 등)

대상제품 선정 및 채택 절차

- ✓ (준비기간) 작업계획, 연구용역, 공청회, 영향분석 등 3-4년
- ✓ (채택기간) 시험인증기간 협의 및 승인, WTO 통보, 규제위원회 심의, EU 이사회 심사, 채택 등 1-2년



TVs



machine tools



computers



water heaters



refrigerating equipment



air conditioning

3. EU 차원의 조세회피 방지 노력

(1) 추진배경(공정과세 원칙 확립, 재정확보)

✓ 글로벌 조세회피 방지 노력

* 조세조약 남용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이자비용 공제제한, 유해조세경쟁 방지 등

✓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악화, 룩셈 조세스캔들 등 여론악화

* Luxeleaks (14.11월) : 다국적 기업(펍시, 이케아, 페덱스, 코치 등)이 유럽 여러 나라의 수익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옮겨 세금을 탈루했다고 폭로된 사건

(2) EU의 접근방식 : 조세총국, 경쟁총국 two-track approach

제도개선

조세투명성 패키지(Tax transparency package) 발표('15.3)

* 회원국간 과세특례(tax ruling)정보 자동교환제도 도입 등('15.10 합의완료 → '17년 시행)

법인세 과세체계 공정성·효율성 제고 액션플랜 발표('15.6, '16년 입법추진)

* 통합법인세과세표준(CCCTB: 한번의 세금보고로 EU내 세금보고 절차 완료) 도입 추진 등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방지 패키지 발표(16.1)

* 조세회피 목적의 해외자회사에 이익 이전시 과세,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과세
조세회피 목적의 자산(특허권 등) 해외이전시 과세, 해외자회사에 대한 이자지급 제한 등

기업조사

개별기업 조사/벌칙부과

- Starbucks, Fiat에 각각 2,000~3,000만€의 세금추납 명령('15.10)
- Apple에 대한 130억€ 규모의 불법적인 조세특혜 환수명령('16.8)

참고문헌

EU 집행위 2016 추계 경제전망 ‘Autumn 2016 Economic Forecast’

